MARKET
STRATEGY

2026. 2. 24

글로벌투자전략팀

전종규 Senior Analyst
juhn21@samsung.com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26년 춘절 소비 보고서

소비 패턴의 변화, 서비스와 AI 테크

- 춘절 소비: 춘절 리테일 소매판매 8.6% 증가, 수요 부진은 진행형
- 서비스 소비: 중국 소비의 개인화/서비스화 심화 단계
- 차이나 AI 진화: 시댄스와 휴머노이드, 본격적인 상용화 예고

춘절 소비: 따뜻한 춘절 연휴

- 중국 최대 명절 춘절 연휴(2/15~23일)가 마무리되었다. 필자는 춘절 기간 북경을 방문하여 현지의 관심 이슈와 소비시장을 확인하였다. 상무부는 춘절 연휴 4일 동안의 리테일, 외식 소매판매가 전년대비 8.6% 증가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장기 침체에 빠진 수요와 부동산 경기를 감안할 때 총량적인 춘절 소비는 견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는 기간 연장(9일)과 정부의 소비부양 효과가 더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서비스 소비: 구조적 성장구간 진입

- 춘절 기간 여행, 엔터 등 가성비가 높은 체험형 소비 지출은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춘절 기간 이동인구와 여행객은 각각 95억 명(연환산), 5.3억 명으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하였고 출입국 인원 또한 205만 명으로 전년대비 14.1%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중국 서비스 소비는 구조적인 성장 구간에 진입하였다. 중국 1인당 서비스 지출 비중은 '10년 34.0% → '20년 42.6% → '25년 46.1%로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서비스 소비 증가율은 연 8.5%에 달한다.
- 중국의 서비스 소비는 2000년대 초반 유틸리티, 통신을 시작으로 2010년대 해외여행, 모바일 서비스 소비를 거쳐 20년대는 헬스케어, 엔터, 교육으로 확대되고 있다. 필자는 지난 18일 설날 전통 거리축제인 베이징 먀오후이(廟會)에서 팬데믹 이후 최대의 인파와 서비스 수요의 잠재력을 확인하였다. 중국 소비의 개인화/서비스화는 최근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한국의 인바운드 시장의 기회로 해석할 수 있다.

차이나 AI 진화: 15.5 경제규획 시작, 본격적인 상용화 예고

- 지난해 춘절은 딥시크와 휴머노이드의 발화점이었다. '26년 춘절은 시댄스 모멘트와 진화된 하드웨어 성능의 휴머노이드가 화두로 부상하였다. 춘절 연휴 이후에도 딥시크 R2 모델 공개와 대도시의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 등이 예고되어 있어 중국 피지컬 AI가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를 선도하는 흐름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3월 양회에서 15차 5개년 개발규획의 구체적인 계획이 공표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향후 5년간 산업의 고도화와 기술 자립을 목표로 제시할 것인데 중국 정부는 내년까지 글로벌 Top-tier LLM 모델을 구축하고 내수 시장에서는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의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소비자의 AI 소비 태도 또한 매우 적극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 2025는 인터넷 플러스를 기반으로 중국을 글로벌 최대 전자 상거래 시장으로 성장시킨 바 있는데 향후 5~10년은 정부의 AI 플러스 정책에 따라서 AI 코어 인프라(반도체, 플랫폼, 전력망), 피지컬 AI(자율주행, 휴머노이드), AI Usage(바이오, 우주항공)의 시장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

춘절 소비

따뜻한 춘절 연휴

춘절 소매판매 8.6% 증가

- 중국 최대 명절 춘절 연휴(2/15~23일)가 마무리되었다. 필자는 춘절 기간 북경을 방문하여 현지의 관심 이슈와 소비시장을 확인하였다. 상무부는 춘절 연휴 4일 동안의 리테일, 외식 소매판매가 전년대비 8.6% 증가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장기 침체에 빠진 수요와 부동산 경기를 감안할 때 총량적인 춘절 소비는 견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당사는 올해 춘절 소매판매 증가율을 5.0%로 제시한 바 있다.

  올해 중국 춘절 소매판매 규모는 1조 위안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견조한 소비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내수 수요 부진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 소비 둔화의 원인에 해당되는 부동산 침체와 가처분 소득 하락 추세의 가시적인 변화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도시 가처분 소득 증가율은 4.3%로 최근 3년래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소비자신뢰지수는 89.5%에 머물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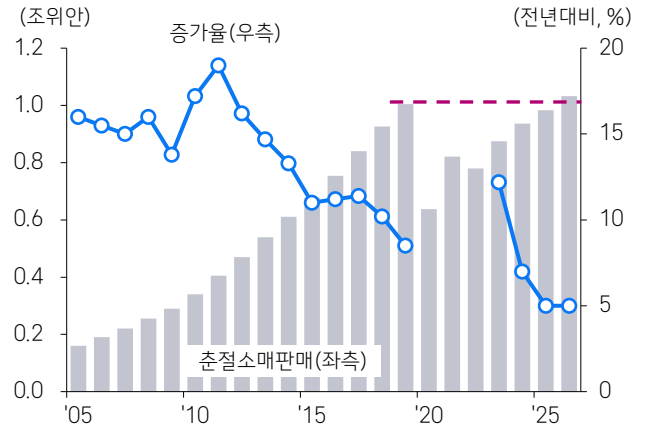
  올해 춘절 소비는 기간 연장(9일, 2.15~23일)과 정부의 소비부양 효과가 더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춘절 기간 이구환신 정책이 재개되었고 상무부는 20.5억 위안 규모의 상품권과 소비 보조금을 지급하였는데 레저 활동 시 사용되는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매출은 지난해 대비 19.7% 급증하였다. 춘절 기간 여행, 엔터 등 가성비가 높은 체험형 소비 지출은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춘절 기간 이동인구와 여행객은 각각 95억 명(연환산), 5.3억 명으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하였고 출입국 인원 또한 205만 명으로 전년대비 14.1%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춘절 소비 지표

구분	주요 지표	전년 대비 증가율	비고
춘절 소매판매	주요 소매 및 외식 기업 매출	8.6%	춘절 4일간
문화 레저	국내 관광소비/스마트 기기	4.5%/19.7%	스마트 웨어러블 기준
교통	지역간 총 이동량	10.5%	연휴 첫날 이동량 기준
해외여행	국내외 출입국자수	14.1%	연휴기간 일평균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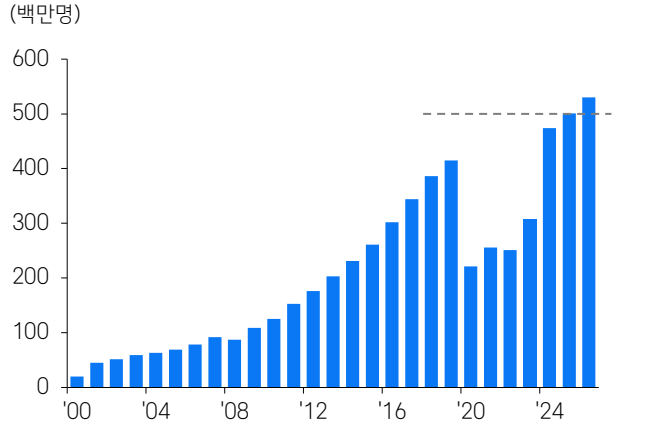
자료: 상무부, 교통운수부

춘절 소매판매 견조한 증가



자료: CEIC, 삼성증권

중국 여행수요 사상최대(5.3억명) 추정



자료: 국가통계국, 삼성증권

서비스 소비, 구조적 성장 단계

- 당사는 '26년 춘절 소비 시즌의 이슈로써 『서비스 소비와 AI 테크의 진화』, 이 두 가지를 제시한다. 서비스 소비는 중국 소비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로써, 차이나 AI의 발전속도는 공급망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가속시키는 요인으로 주목할 가치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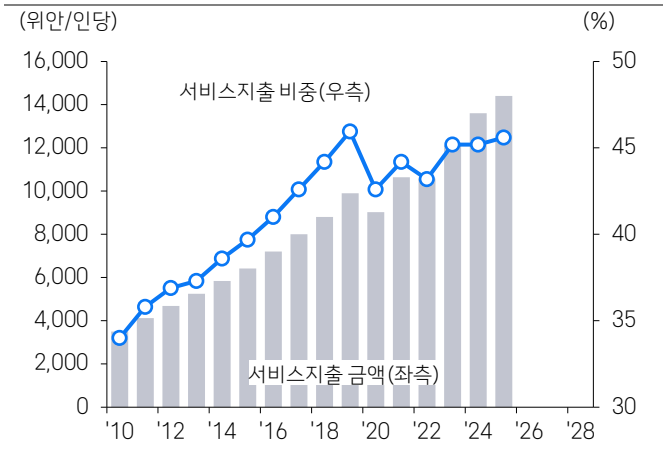
첫째, 중국의 서비스 지출 확대는 소비패턴의 변화로 분석할 수 있다. 중국 1인당 서비스 지출 비중은 '10년 34.0% → '20년 42.6% → '25년 46.1%로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서비스 소비 증가율은 연 8.5%에 달한다. 중국의 서비스 소비는 2000년대 초반 유틸리티, 통신을 시작으로 2010년대 해외여행, 모바일 서비스 소비를 거쳐 20년대는 헬스케어, 엔터, 교육으로 확대되고 있다. 필자는 지난 18일 설날 전통 거리축제인 베이징 먀오후이(廟會)에서 팬데믹 이후 최대의 인파와 서비스 수요의 잠재력을 확인하였다. 중국 소비의 개인화/서비스화는 최근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한국의 인바운드 시장의 기회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해 한국의 중국 여행객은 526만 명으로 3위를 기록하였는데 1위를 차지한 일본(909만 명)의 경우 중일 외교 마찰이 심화됨에 따라서 공식적인 한일령(일본 여행 자제)이 시행되고 있다. 중국의 아웃바운드 수요는 정치/문화적인 변수에 민감하다. 일본 향 중국 인바운드의 급감 현상과 한국의 반사이익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차이나 AI, 15.5 규획 기간 본격적인 상용화 예고

- **둘째, 차이나 AI의 진화이다. 지난해 춘절은 딥시크와 휴머노이드의 발화점이었다. '26년 춘절은 시댄스 모멘트와 진화된 하드웨어 성능의 휴머노이드가 화두로 부상하였다.** 춘절 연휴 이후에도 딥시크 R2 모델 공개와 대도시의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 로보틱스의 대표주자 유니트리 상장 등이 예고되어 있어 AI 테크기술의 진전에 따라서 중국 피지컬 AI가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를 선도하는 흐름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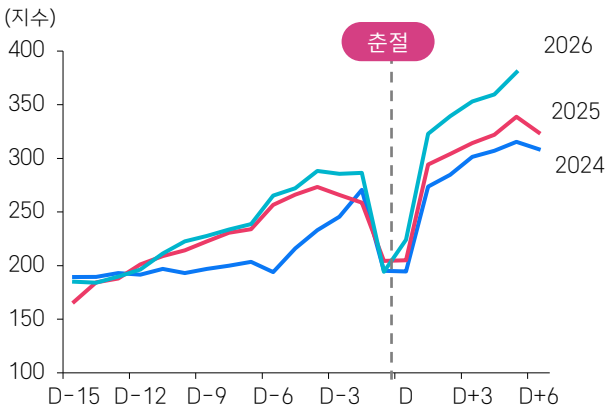
오는 3월 양회에서 15차 5개년 개발규획의 구체적인 계획이 공표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향후 5년간 산업의 고도화와 기술 자립을 목표로 제시할 것인데 중국 정부는 내년까지 글로벌 Top-tier LLM 모델을 구축하고 내수 시장에서는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의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소비자의 AI 소비 태도 또한 매우 적극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 2025는 인터넷 플러스를 기반으로 중국을 글로벌 최대 전자 상거래 시장으로 성장시킨 바 있는데 향후 5~10년은 정부의 AI 플러스 정책에 따라서 AI 코어 인프라(반도체, 플랫폼, 전력망), 피지컬 AI(자율주행, 휴머노이드), AI Usage(바이오, 우주항공)의 시장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 소비지출, 팬데믹 이후 연간 8.5% 증가



자료: CEIC, 삼성증권

춘절 연휴, 여객 운송량 사상최대 경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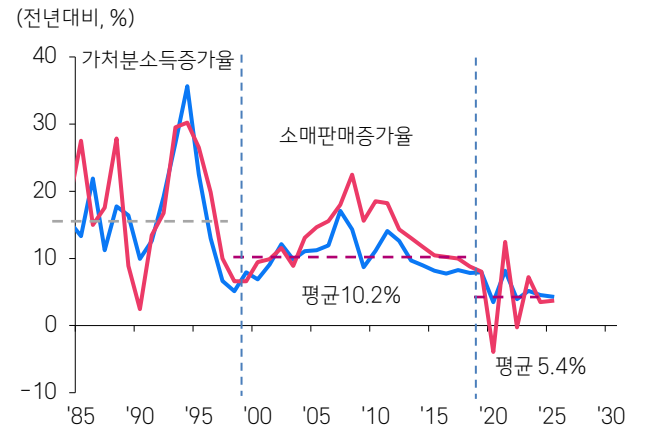
참고: 항공, 철도, 고속도로, 수상교통수단 종합
자료: Wind, 삼성증권

중국 소비품목별 성장률 Top-5

시기 (CAGR, %)	운동, 여가용품	통신기기	음식료 및 주류, 담배	금, 은 및 귀금속	중국 의약품 및 양약	건축, 인테리어 자제	품목 평균
00~'10년	19.0	32.4	19.4	24.0	16.3	33.5	24.5
10~'20년	8.5	19.9	9.4	5.3	4.5	7.9	8.5
20~'25년	16.6	11.5	9.2	7.5	6.2	-2.0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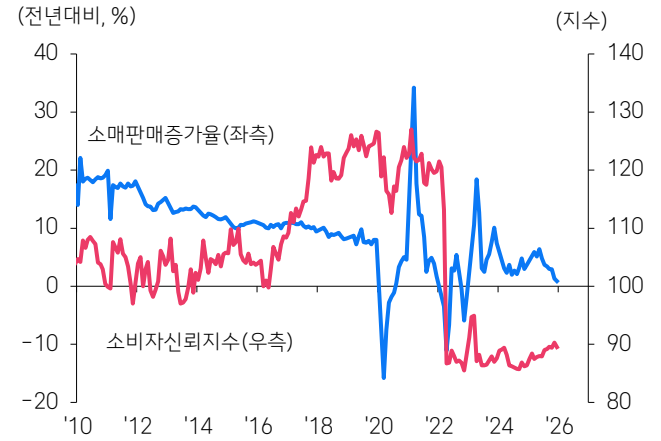
자료: CEIC, 삼성증권

중국 가처분 소득 증가세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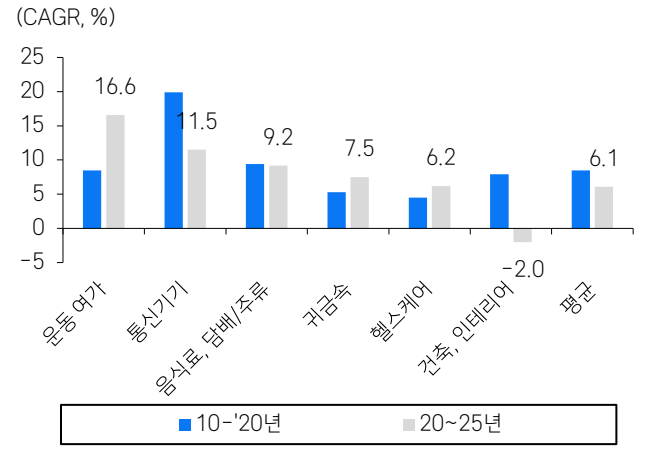
자료: CEIC, 삼성증권

락다운 이후 최악의 소비심리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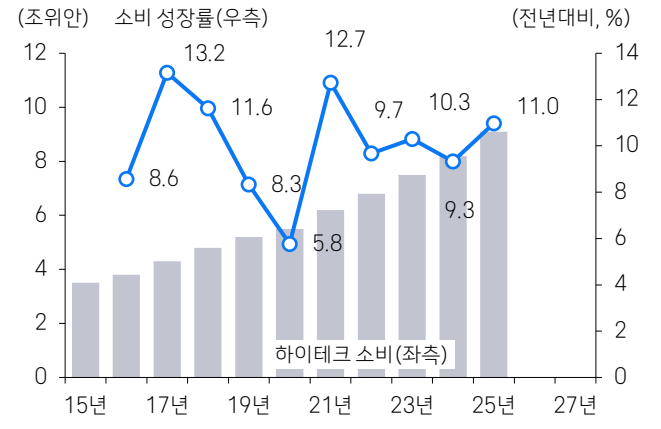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국, Global Times 추정치

소비 변화 (1) 서비스 소비 품목, 성장세 주도



자료: CEIC, 삼성증권

소비 변화 (2) 하이테크 소비의 폭발적인 성장



참고: 스마트폰/통신, 스마트 가전, 신에너지차, 스마트 웨어러블 합계
자료: 국가통계국, 상무부, CAAM

'26년 베이징 거리축제(묘회) 성황

참고: '26년 2월 18일 베이징
자료: 삼성증권

춘절 완회, 진화된 휴머노이드 연출

자료: CCTV, 삼성증권

춘절 집합형 소비, 외식매출 견조한 증가세

자료: 삼성증권

샤오펑 올해 Level 4 출시 예정

참고: 샤오펑 자율주행 차량 내부
자료: 삼성증권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